

문화 부처님 자비광명 불음으로 전파 ... 30여년 지휘자, 작곡가로

작곡가 강영화(옥련선원 지휘자)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가 사르는 이 한 줄기 향이 온누리에 퍼져나가라~”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2014 전국불교합창제 회향의 무대에서는 새 찬불가 ‘향연’이 발표됐다. 전체 참가자 1천여 명이 물론 객석에서도 함께 피날레 곡을 부르며 온누리에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의 향이 퍼져 나가길 바랐다.



30년 넘게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온 강영화 씨. 2014 전국불교 합창제 회향의 무대에서는 자신이 작곡한 신곡 ‘향연’을 발표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향연’으로 전국불교합창제 회향 1천여명 참가자 합창 감동 연출
조계사 청년회가 등 작곡 하며 대학 때부터 찬불가 보급에 매진

하며 지휘를 맡기도 했죠. 그러면서 찬불가가 너무 대중과 동떨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곡을 시작했어요. 당시 ‘조계사 청년회’도 작곡했는데 지금까지도 청년부법회서 불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가 작곡한 수많은 곡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사형수가 쓴 시에 곡을 붙인 ‘길’ (1985)이다.

“당시 한 스님께서 시를 주셔서 제가 거기에다가 곡을 부쳤어요. 요령 등을 전주 부분에 넣어 조계사 청년회에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했죠. 서창업 선생님께서도 제 곡을 듣고는 기대되는 마에스트로라고 칭찬해주셨어요. 이후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음반과 책 등으로 만들어졌죠.”

강 씨는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조계사 어머니 합창단과 금강불교대학 합창단(현재 관문사 합창단) 지휘, 또 봉은사 합창단 반주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한 고향인 부산의 옥련선원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열의도 보였다. 이후 유학생활까지 마치고 부산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27년간 옥련선원 합창단을 이끌었고 지역 불교음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종교음악을 주제로 음악인들을 초대한 공연이었다고 강 씨는 초파일 즈음 불교음악의 밤에 초대되어 전 곡을 자신이 작곡한 찬불가로 연주하는 무대를 가졌다. “지휘는 물론 스테이지별로 해설하는 시간이 있어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한테 불교음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불교음악이 신비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뿌듯했죠.”

강 씨는 앞으로도 대중들이 부담 없이 듣고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작곡을 발원한다.

“제가 불교음악을 처음 시작한 1982년 도만 해도 사찰합창단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었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불자 비불자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포괄적인 차원에 이르면 곡이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정혜숙 기자



강 씨는 27년간 부산 옥련선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옥련선원합창단 연습 장면



제 5회 작곡 발표회 공연 기념 사진

한 가락 산 노래로 나무꾼과 수답하네

사가독서의 장소였던 사찰

“세종(世宗)이 처음으로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문학(文學)하는 선비들을 모아 놓고, 아침저녁으로 맞아서 자문하였다. 그러고도 오히려 문학이 진작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중에서 젊고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게 하였으며, 공궤(供職)를 매우 풍족하게 해주었다. 정통(正統) 임술년(1442, 세종24)에 평양(平陽) 박인수(朴仁 諱, 고령(高靈) 신범옹(申泛翁), 한산(韓山) 이청보(李清甫), 창녕(昌寧) 성근보(成謹甫), 적촌(赤村) 하중장(河仲章), 연안(延安) 이백옥(李伯玉)이 명을 받고 삼각산(三角山) 진관사(津寬寺)에서 글을 읽었는데, 공부를 무척 부지런히 하였고, 시(詩)를 주고받는 것도 쉬지 않았다. 그 당시에 승려 일암(一菴)이 항상 수행하면서 그 글들을 등사하여 전하였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잇든 선비의 詩心

48 진관사 ㉔



진관사 대웅전. 문신 이승소는 문집<삼탄집>에서 진관사와 관련한 시를 썼다.

성현(成愼 1439~1504)이 지은 <용재총화(龍齋叢話)>의 한 대목이다. 진관사는 국가적인 수목제가 열리는 도량이고 삼각산 서북쪽에 위치하여 한양과 가까웠으므로 선비들의 방문도 잦았을 것이다. 거기에 세종이 유능한 젊은 선비들에게 휴가를 주어 진관사에서 글을 읽게 했으니, 젊은 당대 지식인들의 집합소 역할을 했다.

세종 때 시행된 이 특별휴가 제도를 사가독서(暇讀書)라 하는데 젊은 선비가 사가독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상당한 광명자 일종의 권위이기도 했다. 임금이 실력을 인정하여 특별히 휴가를 주어 학문에 더 집중하도록 했으니 ‘가문의 영광’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한 사가독서의 장소로 진관사 등 사찰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절 선비들에게 절은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조용하고 깨끗하여 공부하기에 좋은 수련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스님들은 선비들과 지식을 교류하기도 했고 그들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용재총화>에 나오는 선비들이 지은 글들을 모은 책이 <옥선생유고>로 편찬되어 전해지고 있다.

세종 때의 문신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경우도 진관사 스님들과 교류가 깊었던지 그의 문집 <삼탄집(三灘集)>에는 진관사 관련 시구가 몇 편 수록돼 있다. ‘진관사의 주지 명신이 부채를 보내주다(津寬寺住持明信惠扇)’라는 시를 보자.

중종선원청시명(曾從禪苑聽詩名)
환선금강기후정(緬扇金剛寄厚情)

막아문교위양지(莫諍論交違兩地)
수지결업재삼생(須知結業在三生)
한한최선운림와(閑閑最羨雲林臥)
역역다참세망명(役役多慙世網纒)
방장기시문연어(方丈幾時聞軟語)
차조계수탁진영(借曹溪水濯塵纒)

지향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낙일정정백점요(落日亭亭白蝶遙)
청류상역석남교(清流尚憶石南橋)
명하취백다하상(明霞翠柏多遐想)
일곡산가담만초(一曲山歌歌晚樵)

내 일찍이 선원에서 시의 명성 들었는데
김부채를 보내어서 후한 정을 보이셨네.
논교하니 떨어져서 있는 것을 걱정 말고
업뜻음이 삼생에 있다는 걸 부디 아소.
한가로이 운림 속에 누운 게 쉼 부럽거나
애쓰면서 세상 그물 걸러 몹시 부끄럽네.
방장실서 어느 때나 나긋한 말 듣고 나서
조계의 물 빌려 나의 티끌 갠 씻으려나.

아슬한 저 성가귀에 해는 이슬고
맑은 물은 상기도 석남교가 기억나오.
명하라 취백아 속(俗)을 떠날 생각 많아
한 가락 산 노래로 나무꾼과 수답하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서교(西郊)의 진관사(津寬寺)를 지나면서’라는 시다. 그의 문집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1권에 실려 있다. 제목 그대로 해가 질 무렵 진관사 근처를 지나며 쓴 시다. 시인의 의중은 세 번째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명하는 맑은 노을을 말하고 취백은 푸른 잣이란 말인데, 이는 도가(道家)에서 먹는 장생불사의 약을 뜻한다.

고단한 일상, 떠나고 싶은 마음

시에는 부채를 보내 준데 대한 감사 이상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한가로이 운림 속에 누운 것이 제일 부럽다’는 것은 벼슬살이에 바쁜 자신의 일상에 대한 반조이다.

그래서 미련에서 스님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시의 핵심이다.

‘조계의 물’은 절 주변에 흐르는 계곡 물을 뜻하는데, 양나라 지약(智藥) 선사가 광동성 남쪽에 흐르는 시내의 물맛을 보고 그 상류를 찾아 보림사를 세운 것에서 연유한 말이다. 이승소는 진관사의 맑은 물에 티끌 많은 자신의 갠을 씻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내며 시를 맺고 있다. 갠을 씻는다는 말은 한시에서 자주 인용되는 은유다. 벼슬을 떠나 후식을 취하고 싶을 때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의 삶을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에게는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가요 SD Card 사용 경우)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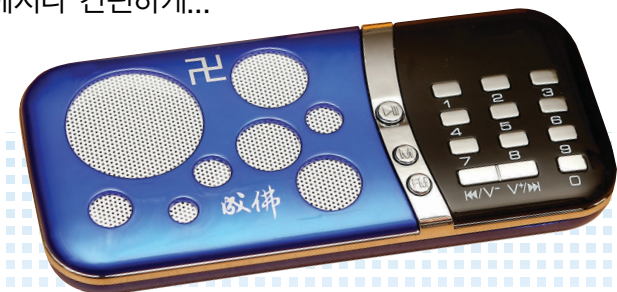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이담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랜덤 발송
* 스님들께서 불자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현대불교현불상 (02)2004-8214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만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영행
- 10. 저녁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송으로 왔다가
- 13. 사랑은 쓸때는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던
-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문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천안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찬불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관경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갈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법문